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Resolution of Marital Conflict

권 영 옥\*

Kwon, Young Ock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alutary effects of marital conflict resolution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subjects were 487 4th and 6th grade students and their parents. Data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the SAS program.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ir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fter intervention, children's perception of the resolution of marital conflict moderated their aggressive or immature behavior. Sex and age differences showed salutary effects of marital conflict resolution on boys' but not girls' behavior problems and on 6th grade students but not 4th grade students.

---

\*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 I. 서론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의 일상환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 가정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은 유발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때로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Gottman & Krokoff, 1989). 그 밖에도 자녀가 부모간의 갈등이나 분노를 관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처기술과 능력의 발달에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인간관계나 삶에 있어서 불가피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귀중하고 건설적인 학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의 능력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간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실제로 '문제 있는' 결혼생활에서 '문제 있는' 아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30년대 이후로 사회과학자, 심리역동분석가, 가족체계이론가 및 행동주의자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성 문제(변영인, 1995; 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내면성 문제(Holden & Ritchie, 1991), 사회적 능력(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및 인지적 능력(Long et al., 1987)과 관계가 있으며,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행동 문제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아동행동문제를 가져온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Harold & Conger, 1997).

그런데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부부간의 갈등, 분노, 적대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따른 일반적인 고정관념은 부모가 논쟁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면서 논쟁을 할수록 자녀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갈등상황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관점이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 수도 있다. 부모가 논쟁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친밀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며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어떤 부부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것조차도 그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 의미와 해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표출의 형태, 즉 부모가 얼마나 드러나게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는가가 아니고 부부갈등 상황 아래 깔려있는 부정적 정서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 의문점은 아동이 단순히 부모가 서로에게 얼마나 자주, 심하게 분노를 표현하는가에 관심을 두는가, 아니면 그들이 부모간 갈등의 의미와 언어에 담긴 함의를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하는가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분노 상황에 대처하는 아동에 관한 인지맥락적 이론들(Grych & Fincham, 1990, 1993)에 따르면 아동이 갈등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받게 되는 영향은 인지적으로 중재된다. Grych와 Fincham(1990)은 단순히 부부갈등상황에 아동이 어떻게 노출되는가를 검토하

는 것은 부부갈등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동이 그들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므로 부모간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스트레스 사건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분석에서 또한 강조되어 왔다(Compas, 1987; Rutter, 1983).

이와 같이 아동이 갈등의 의미에 관심이 있다면 갈등이 끝난 방식, 특히 부모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했는가도 갈등표출 형태에 상관없이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결과에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간의 갈등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 평가는 갈등이 끝난 후 일어나는 행동을 포함하며, 갈등해결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후에 일어날 수 있다. 즉 아동은 갈등국면이 끝난 후에까지도 갈등해결 및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평가를 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아동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갈등의 해결에 의해 감소된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관찰연구에 의해 성인간의 분노에 대한 반응인 아동의 공격성과 심리적 고통은 완전한 해결이 성립된 후에 기초선까지 회복되었음이 보고되었다(Cummings, 1987). 아동 자신들도 그들의 분노와 고통의 느낌이 갈등 상황 후에 일어난 해결에 의해 감소됨을 보고했다(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사실상, 완전한 해결이 뒤따르는 분노 상황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완전히 우호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과 비길 만하다(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Cummings, Simpson, & Wilson, 1993)고 한다.

아동은 미묘한 해결의 변화에도 극히 예민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부정적 반응은 갈등이 해결된 정도에 밀접하게 일치하였다. 예를 들면, 미해결된 갈등(계속된 싸움, 침묵시위)은 부분적으로 해결된 갈등(항복, 주제변경)보다 아동에게서 더 많은 분노를 자아냈으며, 부분적으로 해결된 갈등은 해결된 갈등(사과, 화해)보다 더 많은 분노를 가져왔다(Cummings et al., 1991). 해결된 갈등은 아동에게서 거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았다.

한편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이 있는 앞에서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규준은 아니며(Vuchinich, Emery, & Cassidy, 1988) 부모들은 대개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최근에 Cummings와 동료들(1993)은 자녀가 부모간의 갈등해결상황을 보지 않았을 때에도 그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5~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은 관찰되지 않은 갈등해결도 아동의 관점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것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해결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관찰된 해결에 대한 반응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상황의 해결이 성인간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렇다면 관찰되지 않은 갈등해결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하는 것이 유익한가? Cummings와 동료들(1993)은 갈등해결이 안된 경우 아동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갈등의 관찰과 설명은 부정적 반응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아동에게 갈등해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은 성인간 갈등해결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 해결을 전달하는 또다른 적절한 방법이었다. 즉 갈등해결을 관찰하고 해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각각 성인의 갈등

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갈등해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성인은 계속 화가 난 것이고 의견 차이를 해결한 사람은 긍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해결의 정서적 요소와 내용요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에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이 서로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와 의사소통의 어조 혹은 정서적인 분위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정서적인 요소와 내용요소는 갈등이 해결된 정도에 관해 아동에게 유의미하게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최근에 Simpson과 Cummings (1993)는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 아동의 반응은 성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 메시지와 내용 메시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계속된 싸움에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우호적 상호작용에 대해 가장 부정적 반응이 적었다. 부정적 정서가 포함된 결말은 아동 반응의 부정적인 면을 증가시켰다. 실제로 긍정적인 분위기의 화해와 사과로 끝난 경우 아동의 반응은 전적으로 우호적인 상호작용과 차이가 없었다. 즉 아동은 단순히 갈등의 사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처리함으로써 성인간 갈등해결의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질도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은 성인간의 갈등해결여부 뿐만 아니라 갈등이 해결된 정도에 따라서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갈등해결에 의해 그들이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감소되었다. 또한 아동이 관찰할 수 있는 해결은 물론이고 관찰되지 않은 해결 상황도 추론할 수 있으며 관찰되지 않은 해결에 대한 설명은 부정적 반응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보고되었다. 아울러 아동은

갈등 해결의 정서적 메시지와 내용 메시지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아 부정적 정서가 담긴 갈등해결은 아동의 부정적인 반응을 증가시켰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부부갈등의 해결은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과 갈등의 해결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서 갈등해결이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에서는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 왔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내의 가부장적 전통과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의 혼재로 부부갈등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부부갈등이 가정붕괴의 원인으로 자녀의 정신건강이 부모에게 달려있다(백상창, 1996)고 보고되는 바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부갈등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부부갈등해결의 아동행동문제 중재효과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아동이 나이가 들수록 해결된 분노는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미해결된 분노에 대해 고통이 증가한다고 하므로(Cummings et al., 1989, 1991) 연령에 따른 중재효과의 양상도 검증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0세 이전에는 미해결된 분노에 대해 남아보다 여아가 더 슬퍼했으나 10세 이

후에는 여아보다 남아가 더 슬퍼했다고 보고되었다(Cummings et al., 1991). 따라서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해결의 아동행동문제 중재효과도 비교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갈등해결은 부부갈등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있게 중재하는가?
2. 부부갈등해결의 아동행동문제 중재효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가?
3. 부부갈등해결의 아동행동문제 중재효과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소재 3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남녀 아동 487명과 그들의 부모 혹은 아동을 잘 아는 가족 구성원 중 1명으로 총 974명이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녀 각각 242명, 245명이며 아동행동 평가자는 아버지가 17.5%, 어머니가 80.9%, 기타 1.6%이다. 4학년과 6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모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것을 질문지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은 만 11세가 넘어서야 하나의 사상(事象)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분화하고 이러한 면을 그와 부합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동시에 통합하는 새로운 인지 능력을 획득하므로(Saarni & Harris, 1991) 10세와 12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령에 따른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는 성장을 재촉하는 압력과 사회적 규제가 충돌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행동문제는 표현과 증상이 유아기처럼 급격하거나 청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성의 발견에 시간을 요한다면가 소홀하기 쉬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기는 문제의

예방상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를 부모가 모두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출처에서 얻어진 자료보다 더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O'Leary & Emery, 1984)는 방법론상의 결함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은 아동이 평가하도록 하고 아동행동문제는 부모가 답변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은 비율(아버지: 35.8%, 어머니: 40.9%)을 차지하였고, 아버지의 직업은 판매·생산·서비스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비취업이 69.4%였고 취업한 어머니 30.6% 중 판매·생산·서비스직이 13.4%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203,024원이었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부갈등해결에 관한 아동용 질문지와 아동행동문제에 관한 부모용 질문지로 구성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1)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갈등전략척도 (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1979)나 O'Leary - Porter Scale (Porter & O'Leary, 1980)과 같은 부부갈등척도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부갈등을 아동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가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이정덕(1997)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Grych, Seid 그리고 Fincham(1992)이 개발한 CPIC 척도는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정도 및 내용과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해당되는 지각된 위협, 대처 효율성, 자기비난, 삼각관계, 안정성의 9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타당도 검증과정에서 내적 합치도가 낮은 안정성 차원을 제외하였고 갈등해결 차원은 부부갈등해결 척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7가지 하위차원을 척도에 포함시켜 총 38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그렇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2점, '그렇지 않다'는 1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총 점수는 38점에서 114점까지의 분포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 2) 부부갈등해결 척도

부부갈등해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Grych 등(1992)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해결 차원을 사용하

였다. CPIC척도의 해결 차원은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가 나 있으시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내신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6문항이다. 본 척도가 부모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 전공자 4인의 검토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그렇다'는 3점, '약간 그렇다'는 2점, '그렇지 않다'는 1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총 점수는 6점에서 18점까지의 분포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아동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 3) 아동행동문제 척도

아동행동문제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임상검사 전의 유용한 예비 판별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조사도구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아동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이다(Holden & Ritchie, 1991). CBCL은 국내에서 이혜련, 오경자, 홍강의와 하은혜(1991) 및 한미현과 유안진(1995)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혜련과 동료들(1991)은 CBCL을 아동행동조사표라고 명명하였으며 총 120문항 중 신체적인 문제 8문항, 내면적 증상 72문항, 외면적 증상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1991년판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를 아동행동문제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9개 하위영역 중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의 5개 영역, 40문항을 아동행동문제 척도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에 대한 점

수는 '매우 그런 편이다'에 3점, '약간 그런 편이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의 점수가 주어져서 총 점수는 40점에서 120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1개교씩을 유의표집하여 총 14학급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각 학급을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에 아동용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실시, 회수하였고 부모용 설문지는 아동편에 보내어 담임 교사에 의해 회수되었다. 배부된 550쌍의 질문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487쌍, 974부가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부갈등해결과 아동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전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연구문제 1)

부부갈등 및 부부갈등해결과 아동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을 독립변수로 하고 아동행동문제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단계 분석에서는 아동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 및 부부갈등해결의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2단계에서는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으므로 분석결과는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만 제시하였다.

전체 아동의 행동문제 하위영역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에서는 부부갈등과

행동문제간에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은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와 정적관계가 있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러한 행동문제가 높아지며, 아동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는 부부갈등해결이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아동의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1단계 분석에서 보면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에 의미 있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은 아동의 공격행동 및 미성숙 행동과 정적관계가 있어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2단계 분석에서는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부갈등이 아동

〈표 1〉 전체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 및 부부갈등해결의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수	종속변수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부부갈등	.07	.31***	.18	.87***	.09	.27***	.30	.93***		
부부갈등해결	-.02	-.02	.51	.53*	-.07	-.05	.89	.59*		
부부갈등×부부갈등해결			-.01	-.51*			-.01	-.60*		
R <sup>2</sup>	.10		.11		.09		.10			
F	27.83***		20.32***		23.40***		18.00***			

\* p<.05    \*\*\* p<.001

의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갈등해결에 의해 중재 혹은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부갈등해결이 아동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에 대해 독립적인 주효과를 지니지는 않았으나 부부갈등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부부갈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켜서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의 유발을 억제한다.

## 2. 남녀별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연구문제 2)

부부갈등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갈등해결에 의해 중재되는 양상을 아동의 성별에 따라 검증한 결과, 남아의 경우 과잉행동과 불안행동에서는 부부갈등과 행동문제 간에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의 위축행동은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아의 부부갈등지각은 과잉행동, 불안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남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이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갈등과 남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남아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행동문제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1단계 분석에서 보면 부부갈등이 남아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행동문제에 의미 있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부부갈등지각은 남아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행동문제와 정적 관계가 있어 남아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들의 행동문제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검증에서 보면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남아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갈등해결에 의해 중재되거나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부갈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남아의 행동문제 중 특히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은 부부갈등이 잘 해결된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억제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 모든 행동문제 하위영역에서 부부갈등과 행동문제간에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의 부부갈등지각은 모든 행동문제 하위영역과 정적 관계가 있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여아



〈표 2〉 남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 및 부부갈등해결의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수	종속변수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전체 행동 문제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부부갈등	.05	.23**	.25	1.18**	.07	.21**	.52	1.59***	.25	.28***	.97	1.09**				
부부갈등해결	-.07	-.08	.82	.88	-.18	-.13	1.79	1.27**	-.34	-.09	2.81	.73				
부부갈등×부부갈등해결			-.01	-.92*			-.03	-1.35***			-.05	-.78*				
R <sup>2</sup>	.08		.10		.09		.14		.12		.13					
F	9.99***		8.83***		11.78***		12.76***		15.50***		11.99***					

\* p&lt;.05 \*\* p&lt;.01 \*\*\* p&lt;.001

의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갈등과 여아의 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3. 연령별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연구문제 3)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역할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지를 검증한 결과, 10세 아동의 경우는 모든 행동문제 하위영역에서 부부갈등과 행동문제간에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10세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은 모든 행동문제 하위영역과 정적 관계가 있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갈등과 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2세 아동의 경우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중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및 전체행동문제에서는 부부갈등과 행동문제간에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12세 아동의 부

부갈등 지각은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와 정적 관계가 있어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갈등과 12세 아동의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전체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2세 아동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 분석에서 보면 부부갈등이 12세 아동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에 의미있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은 그들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과 정적관계가 있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분석에서 보면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12세 아동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갈등해결에 의해 중재되거나 억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부갈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12세 아동의 행동문제 중 특히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은 부부갈등이 잘 해결된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억제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2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부부갈등 및 부부갈등해결의 중다회귀분석

예측변수	종속변수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1 단계		2 단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부부갈등	.08	.36***	.27	1.26***	.10	.28***	.43	1.16**				
부부갈등해결	-.04	-.04	.83	.81*	-.07	-.04	1.37	.80*				
부부갈등×부부갈등해결			-.01	-.83**			-.02	-.82*				
R <sup>2</sup>	.15		.17		.09		.11					
F	20.66***		16.36***		11.87***		10.15***					

\* p<.05    \*\* p<.01    \*\*\*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부갈등해결의 아동행동문제 중재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전체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은 아동행동 문제의 모든 하위영역, 즉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행동문제와 정적 관계가 있어서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러한 행동문제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성 문제(변영인, 1995; Harold et al., 1997; Peterson & Zill, 1986) 및 불안, 위축 등(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Holden & Ritchie, 1991)의 내면성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 있는’ 결혼생활에서 ‘문제 있는’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는 이미 1930년대부터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과거의 많은 연구들은 일

반적인 결혼 부적응과 아동의 적응문제간에 관계가 있다는 단순한 결론을 제시해 왔을 뿐 부부갈등 그 자체가 아동행동문제의 원인임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부부관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은 부부갈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Johnson & O’Leary, 1987; Jenkins & Smith, 1991)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행동문제 하위영역 중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에서는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잘 해결되는 것으로 아동이 지각할수록 부부갈등이 아동의 공격행동과 미성숙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인간의 분노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반응은 분노가 완전하게 해결된 후에 기초선까지 되돌아왔으며(Cummings, 1987), 아동 자신도 그들의 분노와 고통이 갈등 후에 일어난 해결에 의해 감소된다고 보고하였고(Cummings et al.,

1989), 주위에서 일어난 분노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된 경우 아동의 반응은 완전히 우호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과 비슷하다(Cummings et al., 1991, 1993)는 결과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부부갈등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아동의 평가가 갈등 상황에 못지 않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갈등이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의견차이에 대해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한 방편이며,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갈등은 부모, 자녀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학술지나 저서에 옮기는 데 그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예를 들면, 연구 결과에 기초해 부부간의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디오 테입 등을 통해 부모들에게 보여 주면서 집단 토의나 실연을 병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남아의 부부갈등지각은 그들의 과잉행동, 불안행동과 정적 관계가 있어서 아동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과잉행동과 불안행동이 높아지지만, 부부갈등과 남아의 과잉행동, 불안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한편 남아의 부부갈등지각은 남아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가 있어 남아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러한 행동문제가 높아지며, 부부갈등과 부부갈등해결간에 상호작용이 있어 부부갈등이 남아의 공격행동, 미성숙행동, 전체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갈등해결에 의해 중재되거나 억제된다. 여아의 부부갈등지각은 모든 행동문제 하위영역과 정적 관계

가 있어서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여아의 행동문제가 높아지지만 부부갈등과 여아의 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아와 여아 모두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를 높게 나타내지만, 남아의 경우만 부부갈등해결이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상황이 어느 한 쪽의 항복으로 끝난 경우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은 두려움을 일으켰으며, 10세 이후 아동의 경우 미해결된 분노상황에 대해 여아보다 남아가 더 슬퍼했다는 연구결과(Cummings et al., 1991)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러나 10세 이전 아동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미해결된 분노상황에 대해 더 슬퍼했다는 연구결과(Cummings et al., 1989)도 있음을 볼 때 분노나 갈등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에 있어서의 성차는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변화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관련 연구가 드물어 그 이유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으며 이에 관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10세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은 모든 행동문제 하위영역과 정적 관계가 있다. 즉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지만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이 중재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12세 아동의 부부갈등지각은 모든 행동문제 하위영역과 정적 관계가 있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며 부부갈등이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갈등해결에 의해 중재되거나 억제된다. 즉 10세 아동과 12세 아동 모두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를 높게 나타내지만 12세 아동의 경우만 부부갈등해결이 부부갈등

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5~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Cumming와 동료들(1993)의 연구에서 나이 든 아동이 어린 아동보다 해결된 분노와 미해결된 분노간에 더 예리하게 구분하였으나 모든 상황의 해결이 성인간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기본적인 반응유형은 연령에 관계없이 매우 유사하였다는 결과와는 다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이 든 아동이 어린 아동보다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가 높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갈등해결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해결 차원의 지각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린 아동은 단순히 표면적인 갈등이 지속되는가 아니면 끝났는가에 관심을 두지만 나이 든 아동은 사고의 깊이가 어린 아동보다 더 깊어 갈등해결의 정도나 질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2세 아동은 10세 아동보다 부부갈등의 해결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평가를 하고 이로 인해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재 또는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시정서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비추어 논의해 볼 수 있다. 아동은 만 11세가 넘어서야 하나의 사상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분화하고 이러한 면을 그와 부합되는 긍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동시에 통합하는 새로운 인지적 능력을 갖게 된다(Saarni & Harris, 1991). 따라서 본 연구의 12세 아동은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면과 부부갈등해결의 긍정적인 면을 통합하여 인지하게 되므로 결국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부갈등해결에 의해 중재된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해결 정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점수로 측정하여 검증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의 다양한 상황, 예를 들면 완전한 해결(화해), 사과나 주제 변경에 의한 부분적 해결, 항복, 지속되는 싸움, 미해결된 갈등 등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는 부부갈등에 의한 아동의 부정적 반응을 중재하는 관점에서 부부갈등해결의 건설적인 면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는 아동이 갈등상황의 해결에 노출됨으로써 긍정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가 즉, 어떻게 그들 자신의 갈등이나 논쟁을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처리하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유의 표집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영옥·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백상창 (1996). 어제서 한국의 자녀들이 망가져 가는가?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출판부.
- 변영인 (1995).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

- 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련 · 오경자 · 홍강의 · 하은혜(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한미현 · 유안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Associates in Psychiatry.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ummings, E. M. (1987). Coping with background ange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Cummings, E. M., Simpson, K. S., & Wilson, A. (1993).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about resolu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78-985.
- Cummings, E. M., Vogel, D., Cummings, J. S., & El-Sheikh, M. (1989). Children's responses to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of anger between adults. *Child Development*, 60, 1392-1404.
-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793-810.
- Johnson, P. L., & O'Leary, K. D. (1987). Parental behavioral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573-581.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1993). Children's

-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or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Rutter, M.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1-41). New York: McGraw-Hill.
- Saarni, C., & Harris P.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pson, K. S., & Cummings, E. M. (1993). Verbal and nonverbal affective consistency of conflict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Unpublished manuscript, West Virginia University, Morgantown, WV.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Vuchinich, S., Emery, R., & Cassidy, J. (1988). Family members as third parties in dyadic family conflict: Strategies, alliances, and outcomes. *Child Development*, 59, 1293-1302.
- Vuchinich, S., Vuchinich, R., & Wood, B. (1993). The interparental relationship and family problem solving with preadolescent males. *Child Development*, 64, 1389-1400.